

북미대형교회의 축복과해독

21세기의 교회의 노래를위한의미

1831년에토케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젊은 미국으로의 많이 알려진 여행을 떠났다. 그의 관찰이 오랫동안미국문화역사의 주된 주제였던이 예리한블란서 여행자는특별히미국의 종교현상에대하여호기심을 느끼게되었다. 그는다음과같이 기록하고있다: “기독교가미국에서보다인간의 영혼에더큰 영향을 끼치고있는곳은 이 세상 아무 데도없다.” 그는미국에서 종교가상당히두드러진다는사실 뿐 만이 아니라, 그종교의 특징에의하여놀랐던것이다. 그는계속해서 이렇게말하고있다: “프랑스에서 나는거의 언제나 종교의 정신과자유정신의 서로반대의 방향으로행진하는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나는미국에서 그들이 친밀하게연합한것과함께 같은 나라를지배하는것을 발견했다.” 그리고그는결론적으로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나는민주당과공화당의 종교로칭하는것보다그것을 더낫게설명할수가없다.”

지난 166년동안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직도상당히많은 것들이 미국에그대로남아있다는것을 보고하러북미대표는오늘여기 욕(York) 지방에있다. 미국에서의 종교적 표현에서 대중적인 인기를누리려는충동은 아직도많이 살아있다. 그리고그것은 지금 거의 모든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교외 풍경의 일부가된 커다란복음주의적 대형 교회들에게있어서 특별히두드러진다. 그런데이러한교회들의 엄청난 영향은 분석과설명을 요구하고있다. 이 글에서 필자의 목적은 이 강의의 구조에반영된 바와 같이 설명, 분석, 비판, 그리고도전의 네가지 이다. 그리고이 글 자체는다른자료에서 시작된 보다긴 논쟁의 축소된 형태이며, 필자가제시한이 글의 제목은 그주제이기도하다. 즉 대형교회의 음악은 해독이면서 또한축복이라는것이다. 여기에서 주된 일은 이러한음악의 어떤 방면이 이상의 각범주에속하는가를분별하는일이다.

1. 설명

가령우리가대형 교회들을 두 가지의 기준, 즉 그규모와 그교회들이 가진 명백히대중적이고, 복음주의적이며, 심지어기업적인 성향에의하여정의한다고가정해보자. 욕 민스터(York Minster)는크기로말하자면 충분하지만, 대중적이지가않다. 반면에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의 기독학생회는대중적이지만, 크지가않다. 결국이 두 개의 기준은 북미에있는약 400개의, 영향력은 있지만비교적 적은 수의 교회들을 남겨놓게된다.

이러한정의에비추어서 필자는이러한대형교회 내에서의 교인들의 노래가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설명하려고시도하는여섯 개의 진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들은 가치판단이 아니라나타난 현상을 진술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 음악이나 예배의식 비평가에의해서 보다는참가자-관찰자로서의 문화 인류학자에의해서 제공되는진술과같은 종류의 것이다. 이 진술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당연한듯이

보여지겠지만, 주로 북미 대형교회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주제를 소개하려 의도된 것이다.

첫째, 이러한 교회들의 음악은 전형적으로 두 종류의 분명한 형태로 표현된다. 즉 연주 중심의 기독교 현대 음악(예를 들면, CCM 또는 보다 대중적인 것으로 크리스찬 락(Rock) 및 성경 또는 찬양 합창곡이라고 불리게 된 참여 중심의 음악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두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공통적인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력적이고, 빠른 박자에, 단순한 화음 구조, 중요한 반복, 장조의 사용 및 시끄러운 악기의 사용 등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음악은 상업적이고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것과 같이 들리도록 만들어졌다. 이러한 세계에서 미리 녹음된 배경 테이프, 노래 인도자 각자에게 주어지는 마이크, 그리고 수천 달러의 음향 시설은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울려퍼진 성가대석 만큼이나 흔한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음악의 가사는 주로 두 가지 출처에서 나온다: 첫째는 성경으로부터의 찬양 송과 둘째로는 종교적 체험에 대한 설명이다. 이 두 가지 장르 모두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들 중의 하나는 사용되는 언어가 지역적이고, 또한 그 스타일, 말씨, 그리고 형태에 있어서 구어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사들은 직접적인 담화체요, 대화체의 말을 사용하며, 그 사용 언어는 복잡함과 미묘한 의미를 의식적으로 피하려 한다. 즉 미묘하고, 깨닫기 어렵거나 상징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것을 선호한다.

셋째로, 이러한 교회에서의 음악은 대개의 경우 울려퍼진 반주자나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로 구성된 성가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통 “예배 팀”(worship team)이라고 불리는 평신도 예배 인도자들에게 의하여 인도된다. 이런 예배 팀은 락(Rock) 악단과 개톨릭 교회의 포크(folk) 음악이 결합된 미사에서의 예배 의식 선창자의 절충형이다. 마치 애리조나 주 피닉스 시의 Community Church of Joy에서의 “복음 악단”(Good News Band)과도 같이 이 팀들은 “현대 음악”을 연주하며 찬양을 인도한다. 또한 노래를 만드는 것이 외에도 그들은 음악과 예배 진행에 설명을 제공하면서 하나의 예배 의식 관리자로서 일한다.

넷째로, 이 400개의 교회에서의 음악은 언제나 소리 증폭기(amplifier)를 사용한다. 악기 자체의 음향은 많은 북미 대형교회에서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비싼 여러 개의 조정 기계가 달린 음향 장치가 없이 노래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것은 음악과 가사의 형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의도적인 화음, 가사의 반복, 그리고 음악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한 음률을 요구하게 된다.

다섯째, 이러한 음악은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 필자가 앞에서 제시한 네 개의 진술은 대형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폭넓게 다양한 복음주의 및 오순절 교회, 여름 캠프 및 대학생 모임 등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대형 교회들이 다른 점은 그들의 큰 규모에 있다. 2000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제공되는 음악은 15명의 연주자로 된 악단과 20-40개의 확성기로 넓은 공간에 울려 퍼지게 된다.

여섯째, 비록 제한되었지만 이런 교회에서도 전통적인 찬송가의 역할은 꾸준하다.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소규모의 선정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것들은 사람들의 문화적 의식 속에 깊이 박힌 찬송가이다. 이러한 찬송가에는 몇 개의 잘 알려진 성탄송 외에도 “갈보리산 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면류관가지고,” “만입이 내게있으면,” “거룩, 거룩, 거룩” 등이 있다. 이 찬송들은 종종 단순한 화음의 진행 가운데 짝아진 가사, 그리고 추가된 (드럼등의) 타악기 부분들로 “재 포장” 되었지만, 많은 전통적인 찬송가 곡집에 있는 찬송들과 동일한 곡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

2. 해석

이러한 진술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제 해석으로 이동하고자 한다. 이러한 표면 아래에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어떤 문화적, 역사적, 신학적 역학이 이 움직임이 가진 독특한 형태를 제공하고 있는가?

첫째로, 많은 북미의 대형 교회들은 예배와 음악에 대한 그들의 접근방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이러한 교회들은 종종 그들이 고백하는 신조나 그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알려지지 않고, 예배 및 특히 그들이 즐기는 음악에 의하여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음악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그들은 큰 예배당에서 전문 성가대가 하듯이 음악에 돈을 사용하며, 그들 중 많은 수는 그들의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심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들의 음악은 고전적이거나 전통적이 아니라 전문적이다. “질” 과 “탁월함” 은 (교회음악전문지인) The Hymn에서 그러한 것같이 그들의 간행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말들이다.

둘째로, 대형 교회나 이 대형 교회들이 나타내는 대중을 향한 움직임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대형 교회들과 그들의 음악은 토케벨(Tocqueville)이 “민주당적인 종교” 라고 묘사한 것의 현대적 유형이다. 그러므로 북미 문화의 현저한 특징들을 염두에 둔다면, 대형 교회와 그들 음악의 출현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북미의 예배역사 전체에 공통적이었던, 이러한 형태의 예배의식과 찬송의 표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엘리트나 지식인의 문화가 아니라 대중문화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하여 지난 10년 동안 많은 예배에 대한 연구는 보다 큰 사회 문화적 패턴이나 소비주의, MTV, 개인주의 등의 견지에서 분석을 시도해왔던 것이다.

셋째로, 북미 대형 교회에서의 음악은 예배의식의 구조를 보완하도록 선정되었다.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기독교 예배의식의 전통적인 형태를 무시하거나 배척해왔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교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위한 의식적인 패턴이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 교회에서의 전형적인 예배의식의 구조는 예배의 시간과 가르침의 시간사이의 분명한 분리를 보여주고 있다. 음악은 전형적으로 전반기에 두드러지는데, 이 전반기에는 교인들을 신나는 찬양으로부터 생각하는 예배로 인도하기 위한 움직임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은 예배 드리는자의 움직임을 “성전 뜰” (outer court)로부터 하나님 임재 하시는 “지성소” 로의 움직임으로 설명하는 대중적인 신학서적의 증가로 인하여 지지되고 있다. 이러한 패턴에서 음악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편이며, 따라서 음악은 성례와도 같은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은 중세의 성찬의 신학이 그렇듯이 종종 단호하고 몹시 의미가 함축된 상태이다. 즉 불려진 찬양이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안내한다는 것이다(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그렇게하기만하면 이루어진다” - ex opere operato ?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저술들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의 구체적인 체험을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논의에서의 중심적인 단어들은 “친밀함,” “순수성,” “관계성,” 및 “따스함” 등이다. 즉 음악은 (폴틸리히에게 있어서의 고상한 예술 작품에 대한 중재의 개념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을 중재하기 위하여 작용하며, 이것은 예술적인 세련됨이나 깊이 뿌리박힌 상징적인 표현의 계층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말을 통해서이며, 이러한 말에서 음악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해석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 견해는 음악 표현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교회 어디서나 발견되는 접속곡(medley)은 합리적이고 교훈적인 언어의 사용을 넘어서 오랜 기도, 묵상 및 “하나님 임재의 체험” 으로 이동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넷째로, 북미 대형 교회들은 이러한 예술적 표현의 형태를 지지하는 크고 독립적인 산업체를 만들어냈다. 이 산업체들은 그 내용이 출판되거나 녹음된 음악, 판권 면허 과정, 잡지 및 강습회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의 넓은 방송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으며, 일련의 모델과 주인공, 즉 목회자, 음악가 및 사업상담자(consultant)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산업은 미국과 캐나다의 찬송가 협회의 서적 사업으로 대표되는 기존 교단의 찬송가 산업만큼이나 많은 교회의 예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산업은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 지향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어떤 것이 잘 팔리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맞추어 반응하고자 한다.

다섯째, 이 400여개의 교회들은 많은 북미 교회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 교회들은 주요 뉴스 매개체의 관심을 유발했고, 이미 여러개의 학술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되었다. 그들은 거의 모든 교단에 속한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자신들의 철학을 유럽, 아시아 및 태평양 주변에 수출함에 따라서 그들의 영향은 북미를 넘어서 확대되고 있다. 그들의 영향은 특별히 예배와 음악에 있어서 중요하며, 대형 교회들은 개신교도들을 위한 예배의식의 실험실과도 같다. 영국의 대성당들이 교구 교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찬송과 성가를 만들어내는 실험실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형 교회는 수천개의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음악의 형태, 스타일, 그리고 유형을 만들어내는 실험실이 되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은 많은 북미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노래를 접근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 및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어휘들을 바꾸어버렸다. 즉 많은 북미 기독교인들은 예배에서의 음악이 울개이 아니라 기타가 인도하는 찬양 밴드에 의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예배음악의 기본유형은 찬송가가아니라합창과유행가풍의 곡조를가진 노래라는전제를그대로받아들이고있다. 실제로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에게있어서, 그리고그가운데의 수백 명의 음악인도자와 예배 인도자들에게찬송가협회라는생각은 기이하게조차보이는것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오늘날 북미 대형교회에서 두드러진 음악은 역사적, 신학적, 사회학적, 그리고문화적인 세력들 간의 복잡한연결의 산물이다. 그것은 욕 민스터(York Minster) 지역의 중세 신비연극, 제네바 성시집, 또는감리교의 초기 찬송가만큼이나 연구하기가복잡한현상이다.

3. 비판

이러한복잡성에비추어볼 때 (필요한것이라할지라도) 어떠한비판도위험을 안고있는실정이다. 찬송 연구가나 찬송 작곡가들간에는이러한교회와 그들의 음악을 2류급 정도로생각하는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형태의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미에서 The Hymn이라는간행물의 내용들은 미적으로결함이 있어보이는장르들을 반대하기 위한신랄한비판들을 게재해왔다. 1950년대에는빅토리아조의 찬송에대한토론을, 그리고 1960년대에는복음 찬송에대한토론을 게재했다. 1970년과 80년대에는토론이 민속음악과찬양합창곡에집중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필자가오늘날 주장하는접근방법이 아니다. 이러한접근방법이 안고있는문제는그리스도의 몸 중 거대하고자라나는부분과의 대화를단절시키며, 때로는우리가학문의 세계에서 추구하는객관성을 단념한다는데있다. 필자는우리가이 움직임을 비판해야한다고주장하고자 하지만, 그비판은 이러한운동의 지지자들을 존중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우리의 도전은 무분별하거나 비관용적이 되는것이 아니며, 탐미주의자나 교양이 없는사람이 되는것도아니다. 필자의 관심사는이러한대형교회를변호하거나 배척하는것이 아니라, 다양한범 교단적 공개토론회가감리교, 로마캐톨릭및 루터교사람들로하여금 성찬의 신학과실천에있어서의 차이점들 조사하도록한것과상당히같은 방법으로그들의 음악가들과목회자 및 컨설턴트들과의미 있는대화를이루는방법을 발견하려는것이다. 따라서 필자는이제 “ 찬송가의 미학” 이라고불릴수 있는것에근거하여이 운동에대한비판과함께 진행하기를제안한다.

가. 찬송가의 미학을 향하여

현재의 이 모임은 미적 취향에관한질문에초점을 두고있다. 미적인 질은 오랜동안우리기관의 관심사가되어왔다. 우리는종종 “ 보다높은 음악의 질” 을 나타내는“ 보다나은 찬송가” 를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종종 그것이 구체적으로무엇을 의미하는지를밝히지 않는다. 그리고우리는다른예술적 표현들(예를들면, 연주회 음악)을 위하여만들어진 미적 이론과감각을 수입하거나 수정하여교회 노래에적용하는경향이 있다.

이것은 어떤 한도에서는우리를 돕는다. 가령이것은 우리로하여금 찬송이 어떤 기본적이고기술적인 음악적 및 가사의 기준에맞아야한다는것, 즉 음악이 어떤 긴장과해결의 감각을 가지고, 가사들이 뒤섞인 비유를제시하지 말아야한다라는기준에맞아야함을 말할수 있도록한다. 문제는이러한기준들이 언제나 절대적으로필요하기는하지만불충분하며, 또한찬송의 유형에무엇이 독특한지 설명하지를못한다는점이다.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기준들이 필요하게된다.

이것을 위하여필자는“ 예배의식의 미학” 이라고불릴수 있는작은 분야에서 최근에있었던대화들을 소개하고자 한다최근신학적 및 철학적 미학과의 대화를제공하는홍수같이 밀려나오는책들은 “ 기독교예배라는상황에서 무엇이 좋은 예술을 만드는가?” 라는질문에대한답을 시도하고있는데, 이 질문에대한답들은 거의 언제나 다음의 세 가지를제시하고있다:

첫째, 찬송가를포함한예배의식에서의 예술은 기능적이다. 그것의 목적, 즉 존재이유는모인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것이다. 기독교예배의 주된 요점이 모인 공동체와 그것의 창조주 사이의 일련의 개인적 및 관계적인 행동(즉, 죄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간섭을 위한중보 기도)에참여하는것이라면, 좋은 찬송가는이러한행동들이 성취되는것을 가능하게만든다. 이 주제의 변형들은 바가기니(Cyprian Vagaggini), 리우(Gerardus Vander Leeuw), 폴리(John Foley), 월터스토프(Nicholas Worterstorff) 등을 포함한다양한이론가들에의하여발전되었다. 이것은 예술 자체를위한예술을 주장하는순수주의자의 미적 이론들에대한의식적인 부정을 뜻한다.

둘째, 찬송가를포함한예배의식에서의 예술은 지역적인 것이다. 찬송가들은 음악적, 시적, 또는미적 훈련이 없는사람들에의해서 쉽게받아들여질 수 있는음악형태여야가장 좋은 것이다. 찬송가의 경우, 지역적인 것은 내적인 덕이지, 악이 아니다. 가장 큰 대형교회의 음악에별로감동하지 않을 루틀리(Erik Routley)는그럼에도불구하고찬송가를“ 음악교육이 없는사람들이 함께 노래를부르며... 문학교육이 없는사람들이 함께 말할수 있는그런시이다” 라고말했다템펠리(Nicholas Temperly)는자신의 광범위한영국교구교회의 음악연구를다음과같은 말로결론을 내리고있다: “ 찬송은 듣는자나 더욱이 비평가가아니라노래부르는자를위하여존재한다... 만일 찬송가곡조가음악전문가에게기쁨을 준다면, 이것은 단지 우연한유익임에틀림이 없다.” 이러한정의에의하면 찬송가들은 지역적이며, 지역문화와 심히결부된 표현의 형태이다.

이것은 즉각적으로예배의식의 토착화에관한최근의 저술을 생각나게한다. 20세기 기독교예배에대한바티칸 II의 많은 공헌중에하나눈에 띄는예배의식의 표현이 지역교인들의 특정한문화적 환경을 반영한다는주장이다. 바티칸 II 이후로적은 수의 예배의식 연구자들은 어떻게 (토착화, 고유화, 문화수용 등 다양한용어로표현된) 이러한적응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가에관하여의식적인 시도를해왔으며, 문화적 개별성에대한포스트모던의 관심사에힘입어서 다양한전통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계획에열정적으로접근해왔다. 로마카톨릭교회는자이레(Zaire)를위하여말이

많았던“ 고유 의식” 을 만들어냈고, 개신교도들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고유한음악적 자료의 개발을 열심히장려해왔던것이다.

그런데중요한것은 토착화를향한최근의 움직임이 고유한표현 양식을 추진하기도하고제한하기 했다는사실이다. 이러한토착화의 움직임은 기독교예배의 역사적 구조를보조하는한도내에서만고유한형태를발전시키도록장려해왔다. 일반적으로말해서, 이 운동은 기독교예배가그문화적 환경으로부터자연스럽게발생되어야한다고주장하지만, 또한기독교신앙의 중심적인 가르침에반하는문화의 방면들을 비판하고있다. 그것은 예배가“ 문화적인 굴복” 이나 “ 문화적인 무관함” 모두를피해야할것을 주장한다.

셋째로, 찬송가를포함한예배의식에서의 예술은 공동의 것이다. 이런점에서 예배의식에서의 예술은 서방 문화에서의 많은 고급 예술의 장르및 교육 기관과다르다. 연주회 음악에서 우리는연주하는예술가각자의 뛰어난가치 있게여긴다. 그러나 예배의식의 문맥에서 뛰어난가치란재 정의된다. 즉 여기에서 가장 높은 가치는일단의 음악비숙련자들로하여금 함께 음악을 만들 수 있게하는것이다. 월터스토프 (Nicholas Wolterstorff)가주장한대로,

“ 예배의식에서의 예술이란나머지 우리는그걸에서서 그것을 즐기는사람이나 비평가가되고예술가만 ‘ 자기 자신의 것을 하는일’이 아니다. 예배의식에서의 예술은 예술가가예배의식에참여한공동체에게그공동체의 찬양과죄의 고백 및 중보 기도를위하여제공하는것이다. 예배의식에서의 예술은 우리를위한예술이요, 우리로하여금 전 세계적인 사회를가능하게만드는예술이다. 예배의식의 예술에서 예배 공동체는숨쉬있는제사장적인 손과목소리를발견하게된다.”

그러므로예배의식의 예술에서는자율적이고혼자만인 예술적 천재에게교만의 여지가제공되지 않는다. 대신에예배의식에참여한예술가는종으로서의 역할을 취하도록부름을 받으며, 예배를드리는자들로하여금 자신들이 가지고있음을 알지 못했던목소리를주어하나님께 찬양의 노래와 기도를드리도록한다.

2. 찬송가의 미학과복미 대형교회의 음악

이제 다시 대형 교회들로돌아가자. 이러한교회들과그들의 음악은 과연이 세 가지 기준에비추어어떻게나타나고있는가? 그결과는복합적이다.

첫째, 이 음악은 기독교공동체예배의 행위들을 지지하는기능을 하는가? 어떤 경우에는그렇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어떤 경우에는노래들과찬송가들이 그들의 즉각적인 호소력때문에불려지고선택된다. 이 노래들은 막연히종교적 감상이나 신학적 주제를나타낼 지 모르지만, 그들이 의도한효과는사람들로하여금 “ 그노래를통하여나는나의 죄를하나님께 고백했다” 거나 “ 그노래를통하여나는역사가운데의 하나님의 능력있는일하심을 찬양을 드리는방편으로되새겼다” 등의 말보다는“ 나는그음악을 즐겼다” 거나 “ 그것은

적절한 것이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었다. 어떤 교구음악인들이 단순히 음악적으로 인상적이거나 성가대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시설과 공연행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찬송을 선택하듯이, 대형교회의 어떤 음악인들도 예배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이유들에 의하여 음악을 택한다.

또 다른 경우에 대형교회에서의 음악은 예배의식 행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노래와 찬송가들은 구원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며, 죄를 고백하며,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선정된다. 예를 들면, 필자는 중보기도시간에 “In Our Lives, Lord, Be Glorified”와 같은 단순한 노래를 기도서에서의 반복 어귀같이 (가령 “주여, 당신의 긍휼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와 같이)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이런 경우, 음악과 음악이 연주되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가사, 음악가의 자세, 노래의 소개)은 그 음악이 특정한 예배의식의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래의 곡조와 가사에 대하여 우리가 무언이라고 말하든, 이러한 예는 이 첫째의 기준에 잘 맞는다. 요약하자면, 이 첫 번째 기준은 대형교회에서의 음악을 그 모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음악은 지역적인가? 여기서는 “그렇다” 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형교회에 있는 많은 음악가들에게 두드러진 목표는 그 감각이 주로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음악 형태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곡조와 가사로 된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대형 교회들은 우리와 산업화된 서방의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최근의 토착화의 시도로부터 배운 교훈을 고려할 때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최근의 토착화의 작업은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이 전 세계적이며 필연적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북미의 대형교회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준 또 하나의 예이다. 4세기의 대성당이 콘스탄틴 황제의 지배를 반영했듯이, 자이레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의 교인들의 댄스가 문화의 정신을 반영했듯이, 북미 대형교회는 대중 음악, 텔레비전, 그리고 깊이 자리잡고 있는 대중을 추구하는 성향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화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중요한 것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산업화된 서방사회 “내부에서의”) 적극적인 토착화 경향에 괄목할 만한 하나의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흥미롭게도 외국에서 그렇게도 철저한 토착화를 추구하던 사람들 중의 얼마는 본토에서 진행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를 안타까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교회를 회피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토착화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중 하나를 피하는 것이다.

반면에 최근의 토착화 작업은 그 과정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토착화는 기독교 복음이나 예배의 패턴으로부터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라내는 구실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대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특별히 공동체로서의 죄의 고백, 애통, 빈번한 성찬의 집행 및 공동체로서의 세례의 실행을 없애 버린 교회들에서 그렇다. 또한 토착화는 찬송가의 정서적인 폭을 제한하는 구실이 아니다. 지역적인 문화 경험은 음악을 통하여 믿음의 표현을 강화하고 깊게 하는 자료가 되어야 하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

대형 교회들은 이 점에 있어서 잘하고있지를 못하며, 특별히 그들의 음악이 균일화 될 때, 즉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특성(빠른 리듬, 장조 등)이 대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 거의 모두에 나타날 때 그렇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기준은 북미 대형 교회의 접근 방법에 대한 인정 및 비판하는 일을 돕는다. 토착화된 음악은 대중문화로부터의 소리와 표현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기독교 신앙의 완전한 능력, 의미 및 정서를 표현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문화적 환경을 넘어서기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이 음악은 공동의 것인가? 그중 얼마는 그렇다. 어떤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도록 돕는 방법” 과 같은 글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두 가지의 요인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첫째로, 많은 대형 교회의 음악인들은 주로 가수를 모델로 삼는다. 어떤 교회에서는 클래식 음악가수를 그 본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에서는 대중적인 가수를 그 본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모델 모두가 가수, 그리고 종종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혼자서 하는 가수를 모델로 삼는데 있다. 그 결과로 이러한 음악의 상당한 부분이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 되며, 일반 사람들은 참석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리고 종종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돕는 무대 장치와 음향을 가지고 오히려 그 정 반대의 것, 즉 사람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대형 교회의 큰 규모가 이러한 음악에 참여하는 방법에 극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커다란 공간과 많은 사람의 모임은 다음의 두 가지 효과 중 하나를 나타내게 된다고 말한다. 즉 웨일시(Welsh) 지방의 대규모 찬송 집회와 같이 이러한 환경은 대중으로 하여금 열렬하게 노래하기를 장려하거나, 아니면 많은 운동 경기 전에 하는 애국가 부르는데와 같이 사람들이 하여금 적극적으로 음악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유는 어쨌든 간에 보통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종 웨일시(Welsh) 집회보다는 운동 시합에서 부르는 것과 같다. 이 경우 큰 규모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참여 부족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이 음악 그 자체에 속한 성질은 아니지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만일 우리가 원리상으로 대중문화의 형태를 반대한다면, 북미 대형 교회의 음악은 무시되거나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이러한 견해를 가진 부류에 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런 교회들과 관련을 맺기 원한다면, 이러한 기준들은 이러한 교회에서 어떤 음악이 축복이며, 어떤 것이 해독인지 구별하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다. 또한 이 기준들은 찬양, 죄의 고백, 선포, 도고 등의 예배 의식의 행위들을 보충하고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접근 가능토록 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또한 전 교인에 의한 능동적인 찬양을 방해하는 공연식 행위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은 기독교 신앙의 정서적인 범위와 의미를 포함하는 새로운 가사와 곡조를 만들어 낼 것을 권장한다.

4. 미래의 방향

필자는이제 교회에서의 노래의 미래와 찬송가연구의 미래에관한몇 개의 짧은 도전으로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우리가학자나 찬송작가, 또는목회자나 예배연구자, 또는교구음악가든 간에, 우리가이번 주에논의한문제들, 즉 취향, 질, 탁월성, 신학적 및 미적 가치 등은 21세기에들어가는우리에게중요한문제들이다. 이것들은 대중문화의 광범위하고커지는영향을 고려할때 특별히중요하다.

첫째는우리모두에대한도전이다. 이 주제는우리로하여금 찬송가의 미적인 질에관하여좀 더명확하고, 좀 더정확하고, 좀 더교감이 되는설명을 발전시킬 것을 도전하고있다. 찬송이 “ 취향에맞는” 것이어야한다거나 “ 탁월함을 유지해야” 한다는상투적 표현을 반복하는이론적 접근은 대형 교회나 다른대중 지향적인 종교적 표현 양식과의 대화에서 기능을 잘 발휘할수 있는구체적인 것이 아니다. 그해독이 무엇이든지 간에, 북미의 대형교회와 관련된 하나의 축복은 모든 교회가그리스도의 복음과가장 완전하고심오하게일치하는예배의식 행위의 종류와 교인들이 부르는노래의 패턴을 명확하게만들지 않으면 안되게되었다는점이다.

둘째로, 역사가, 신학자, 사회과학자, 찬송 연구자들을 포함한학자들에대한도전은 만일 다음 세기가소위 “ 고전적인” 형태의 찬송가를사용하는사람들과보다“ 대중적인” 형태의 노래를사용하는사람들간의 대화를갖도록한다면, 우리에게는이 대화를지원하기 위한보다학문적인 연구가절실하게필요한실정이다. 상당한분량의 학문적 노력들이 찬송가의 지적, 신학적 및 음악적 방면들을 살펴왔다. 종종 찬송은 한편으로는연주회 음악을 위해서, 또 다른한편으로는신학적 논술을 위해서 발전된 방법에의하여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우리에게사회적 또는문화적 역사의 수준에서의 작업이 더욱 필요하다. 가령개인적인 일기가중요한음악편집에가치 있는근거로여겨지는작업이 필요하다. 찬송가들이 음악가, 신학자, 또는목회자로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그기능을 발휘해왔는가? 전에있던음악가들은 어떤 방법으로미적인 탁월함과접근가능성 사이의 긴장을 해소했는가? 하고말이다.

셋째로는, 이러한북미 대형교회가찬송작가, 시인, 편집자, 발행인들로하여금 시적, 신학적 및 음악적 기준에맞을 뿐 아니라지역적이고대중적인 표현형태를받아들이려는노력을 존중하는음악을 작곡하고발행하도록노력을 배가할것을 도전한다는점이다. 질적으로뛰어난 음악은 숙달된 성가대와 클래식 음악에훈련된 음악가들만이 아니라북미 대형 교회들의 찬양팀을 위해서도필수적이다. 북미 대형교회 에서 어떤 노래가실제로불려져야하겠는가?

출판되지 않은 논문 계획에서 Worship Leader 잡지의 편집자이며 대중추종 형태의 찬송의 지칠 줄 모르는지지자인 프롬(Chuck Fromm)은 "오늘날 개발되고있는새 노래(New Song)는성경의 위대한주제들을 회복해서 시적 및 심오한서정시로표현하는사람들의 영향을 기다리고있다" 고말한다. 이것은 우리협회의 회원들이 어느정도경험한일이다. 노래의 구성 과정은 언제나 주어진 작업의 제한을 확인하는데서 시작한다. 우리는북미 대형교회의 찬양팀을 위한음악을 만드는일을 우리의 음악제작상의 제한으로받아들이지

않으려는가? 모든 미적인 가사 및 음악상의 기준에 맞으면서도 널리 퍼지고, 계속되고, 영향력 있는 북미 대형교회의 상황을 존중하는 음악을 만들 창의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독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인 북미 대형교회의 교인들의 노래는 이제 우리의 찬송가협회에 강력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토퀘빌(Tocqueville)은 북미 기독교에 대한 그의 분석을 다음과 같은 충고로 끝을 맺고 있다: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모든 민주적인 본능을 존중하고, 많은 호의적인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기독교는 가장 위험한 적인 개별적 독립의 정신과의 투쟁에서 성공적으로 이기고 있다.” 이러한 분별하는 참여에로의 부름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힘든 업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